

2002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

송 영 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I. 머리말

금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5년째가 되는 해로서 출범당시인 5년전의 경제여건과 비교하면 금석지감이 있다.

1997년 12월 39억달러로 떨어졌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해 12월말에는 1,028억달러로 늘어났다. 1997년 당시 급박한 외환유동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1998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199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

다만, 2000년 하반기 이후 해외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그 영향이 생산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IMF위기를 겪지 않았던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비하면 우리경제는 상당한 체질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기업, 금융, 공공, 노동의 4대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4대부문의 개혁결과 시장경제의 중시, 무분별한 사업확장 지양, 경영의 투명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정망 확충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도 1998년도부터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금년도에서는 작년 9. 11 미국테러 사건으로 얼어붙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중국의 WTO가입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때보다 지방공기업의 역할분담과 변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현황과 그간 주요성과 및 올해의 지방공기업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Ⅱ. 地方公企業의 主要現況과 그 展望

1. 地方公企業의 主要現況

200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공기업은 총 308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독립채산제와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 174개와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 100개, 또한 민관공동출자기관(3섹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 34개가 있다.¹⁾

2000년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48조 4,759억원이고, 자본이 27조 4,702억원, 부채가 21조 57억원이며 부채비율은 76.5%로서 국내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185.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건전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총자산 15조 5,264억원, 자본 6조 4,496억원, 부채 9조 768억원이다. 또한 2000년의 경영성과는 총 2,9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으나, 지하철공사(8,189억원 적자)를 제외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5,194억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6,429명의 인력 감축과 14개 법인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 각 유형별 운영현황을 보면 상·하수도 등 174개 직영기업은 '99년도 5,115억원, 2000년에는 5,1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상·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2001년말 현재 107개 단체가 통합 운영되고 있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추진하여 18단체 187구역이 민간위탁되었으며, 하수처리장시설 51개단체 94개소가 민간위탁되었다. 상수도의 경우 2000년 한해에 재무제표상으로는 5,176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괄원가를 고려할 때 5,365억원의 적자상태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낮은 요금현실화율에 기인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98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원가수준의 100% 현실화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도말 현실화율은 77.8%(생산원가 톤당 569원, 판매단가 톤당 442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 지방공기업 설립현황은 별표 참조

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인천·대구 등 4개 지하철공기업의 경우에는 과다한 건설부채, 요금현실화 부진 등의 이유로 2000년 한해에 8,1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99년 6,423억원의 적자에 비해 1,766억원이 증가하는 등 적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요금현실화율은 2000년 현재 50.9%(수송원가 852원, 평균요금 434원)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요금현실화와 함께 강도높은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는 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의료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울진의료원을 제외한 33개 의료원에서는 의약분업실시, 의약품 시가보상제 실시 등으로 2000년에 2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전년도 73억원보다 경영성과가 더욱 악화되었다.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현재 이천, 군산, 마산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이 민간위탁중에 있고, 춘천·제주의료원은 각각 강원대와 제주대에 매각되었다.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315억원으로 전년도 403억원보다 21.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시설관리공단 등 30개 결산대상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99. 4. 지방공기업설립인가권의 폐지이후 23개의 공사·공단이 설립되고 3개 공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을 2분의 1미

만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34개의 제3섹터의 경우, 2000년에 285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초기 과다한 투자재원차입, 매출부진 등 경영악화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의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무리하게 설립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2. 公企業의 設立과 그 展望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치목적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복리증진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활동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반면에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민영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1개 민영화대상기업중 6개기관의 민영화를 이미 완료하고 나머지 5개기관의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민영화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이 높아 민간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지역경제력이 성숙되지 않아 민영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다가 민간기술·경험축적, 지역민간자본이 형성된 후에는 기업성비중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점차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향토지적자산을 계속 발굴, 상품화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연구개발비, 생산시설 등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이 선뜻 나서기가 곤란한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육성해 나감에 필요하다 하겠다.

Ⅲ. 國民의 政府 4年동안 地方 公企業의 主要成果

1. 總 評

국민의 정부 4년동안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고통의 기간이었고 체질을 바꾸는 시련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이전에는 지방공기업이 행정에 기업경영기법 도입이라는 명분아래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한 방편으로 운영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폐지와 지방공기업의 슬림화로 인해 많은 임직원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의 노력이 공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 맑은 물의 安定的 供給基盤 強化

지방직영기업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의 경우 상수도 급수구역을 전국인구의 84.5%인 3,961만명에서 총인구의 87.1% 4,177만명으로 확대하였다.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 안정시책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1998년도부터 생산원가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0년말 현재 77.8%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01년도 요금현실화수준은 현재 결산을 진행중에 있어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 85%수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으로 노후불량관, 불감계량기의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꾸준한 유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으로 1997년에 유수율이 71.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말 현재 74.8%로 향상되었다. 이 수치는 선진국수준 80~90%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나, 앞으로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크게 향상되리라 믿는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이 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도 '97년에는 5조 2,196억원이던 것이 2000년말 현재 6조 1,22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년 9월에 6.5%~7.5%이던 융자금 금리를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4.5%~5.5% 수준으로 대폭 인하조치한 바 있고, 대부분 단체가 변경된 금리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構造調整과 經營革新의 마무리

1998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인력감축은 2002년 6월말까지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2001년 10월 1일현재 정원(17,335명)의 18.4%인 3,182명을 감축하였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998년도에 민영화·청산·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기로 계획한 14개대상 공기업중 이미 13개가 통폐합 등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개기업에 대한 매각이 진행중에 있다.

공사·공단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완료(13개 공기업)>

- 민영화(2) :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 청산(4) : 김제개발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 고창화훼생산유통공사, 금강도선공사
- 통·폐합(3) :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체육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민간위탁(3) : 이천·마산·군산의료원
- 인가취소(1) : 경기도 광주시 광주종합개발
<추진중(1개 공기업)>
- 민영화(1) : 안성축산진흥공사

공사·공단의 인력감축은 총 감축대상 6,398명(당초정원의 18%)를 초과한 6,429명을 감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직원공개채용 및 계약제, 연봉제, 정년조정, 퇴직금지급을 개선, 간호직의 직급호봉제 실시 등

공기업의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경영혁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영평가를 통한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제도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4. 經營의 自律性 및 責任性的 調和

1999. 1. 29. 지방공기업법을 대폭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승인권, 정관변경승인권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종전의 사전적 규제 일변도에서 사후적관리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영기업은 격년평가,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매년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자치경영협회와 공동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의 경영대상을 수여하였다. 작년의 경우 총 162개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결과를 기관성과급과 연계하여 기본급의 100%~300%까지 차등지급토록 하였다.

IV. 2002年 地方公企業의 運營 方向

1. 基本方向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작년 9. 11 미국테러사건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이 정부의 집중적인 경기활성화 시책으로 경기

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단계는 아니므로 금년도 지방공기업의 방향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호재라 할 수 있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의 수요와 대외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의 다각화 등 변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물 市場開放對備 地方上水道 運營體系 改編

지방상수도사업이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군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단체간 시설가동율과 생산원가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요금현실화를 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시설이용율에 있어도 남원의 경우 93.2%이나 완주는 24.2%이며, 1톤당 요금의 경우에도 홍천은 971원이나 안산은 246원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인구의 격차, 수요의 여건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요금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수계별로 수개의 단체를 통합하여 상수도 시설을 공동설치·운영함이 요청된다.

그러나, 시군간의 통합은 요금의 격차, 상수도 시설출자, 현금출자, 상수도채무 등 자치단체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장기계획하에 우선 상수도 시설을 공동운

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권역별 지방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여건이 된 단체나 희망단체가 있으면 공동설치나 통합운영에 필요한 시설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地方上·下水道の 料金現實化 및 料金體系改善 마무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민의 보건 위생을 위한 하수도의 보급은 국민생활의 기초수요 충족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노후·불량관과 불감계량기를 중점 교체하여 무수율(無收率) 비중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투자함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당초 목표년도인 2001년도에는 요금현실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목표년도를 2004년도로 조정한 바에 따라 금년도는 90%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금현실화 수준을 지방채증인과 교부세 인센티브 등과 연계를 강화하프로서 금년도 목표수준을 달성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요금의 원가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종 통·폐합으로 단순화하여 업종간 형평을 기하고 누진

요금체제를 핵가족화에 따라 누진요금 적용기준을 낮추고 하절기 차등요금제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地方公企業 經營評價 制度改善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법령에 불구하고 사실상 위임형식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한국자치경영협회와 같이 실시해오던 것을 명실상부하게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공기업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할 경우에 현지실정을 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영평가결과가 직원의 보수책정 등 인센티브와 연계되므로 연고, 친소관계에 따라 관대하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평가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더 큰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격년제로 시행하던 직영기업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평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보강하고 우수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차등지급, 해외연수 등 인센

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地方公企業 經營革新 持續推進

지방공기업이 상시 자율경영혁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해임, 과다한 인력·조직의 감축, 기업퇴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신설공기업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실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경영혁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지표에 경영혁신 이행상황 항목의 가중치를 늘리고 이행공기업에 대해서는 총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차등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은 년내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요구액 삭감 등 재정패널티 적용방안 등을 강구하며,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책임규명과 금년도 평가결과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6. 地方公企業의 經營效率性 提高

지방공기업중 부채가 많은 지하철사업 및 상수도사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으며 부채비율이 과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

사업 등을 가급적 억제하여 부채를 경감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 발전방안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공기업마다 인사보수체계가 상이하여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공단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원의 경우에는 정보화 인프라확충을 위해 진료전산시스템구축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PACS장비 설치사업을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및 주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7. 地方公企業 運營基盤 定着 支援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설립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으로 타당성 검토기관을 엄격히 하고 그 등록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하며,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쟁확대를 통한 조달·구매제도를 확립하고 부정당행위의 범위·제재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 부정당업자가 공기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종사자의 자질을 높이고

경영마인드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에 준하여 의무화하되 전문교육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으며 관련분야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중앙단위나 지방단위에서 개최하는 등 연구·연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 郷土知的財産의 地方公企業 接木

조상의 얼과 전통이 담겨져 있는 향토지적재산은 고려인삼, 김치로 인하여 그 중요성을 눈뜨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현재 세계일류상품 55개 품목과 차세대 일류상품 65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바 있지만, 향토지적재산이야말로 세계시장에서 일류상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귀한 자산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은 그 품목이 6,151건이나 되고 이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권리화한 것은 1,008건이 된다.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은 발굴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세계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여 상품화할 때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본다.

시중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백세주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쌀로 발효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약재를 사용한 건강주로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향토지적자산을 개발 상품화하는 사업을 민간이 하면 좋지만, 투자에 따른 초기부담

과 위험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에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방공기업은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영역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의 다각화 방침과 부합한 바, 향토지적재산으로 활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부에서는 금년도 월드컵개최와 시기를 맞추어 적절한 시범사업을 선정,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교부하여 향토지적재산을 소재로 한 상품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학·연이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적 상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의 향토벤처육성 등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 新勞使文化의 定着

금년도에는 월드컵대회·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세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월드컵대회는 우리의 생애에 한번 맞이하기 어려운 국제행사로서 국가적으로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금년 초에는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산하 6개 지방공기업이 파업직전까지 가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간 원만한 협상결과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망도 있지만, 노사무분규 등 경제주체의 인내·협력을 전제로 한 가정일 것

이다.

앞으로 노사관계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협력의 관계로 더욱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가정에 손님이 오실 때는 극진히 맞이하고 접대하는 미풍양속이 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 기회를 늘려 노사화합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금년도 노사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져 지방공기업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V. 結 論

올해는 국민의 정부를 결산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마무리하고 상시적인 경영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방공기업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지방공기업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인은 현재 처한 국내외 기업환경의 정확한 인식하에 차분하게 세계속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별표1> 地方公企業 現況(總 308個)

(1) 直接經營事業(174個)

(2001. 6.30현재)

세부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74	
상 수 도	94 (시 78, 군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양주, 가평,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하 수 도	2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남, 구리, 춘천, 청주, 전주, 완주, 나주, 경주, 구미, 제주
공영개발	43 (시도 5, 시군 38)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진주, 익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 양산
지역개발 기 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間接經營事業(134個)

(2001. 6.30현재)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34	
지 방 공 사	소 계	62	
	의 료 원	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도시개발	1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 하 철	4	서울(2), 대구, 인천
	기 타	5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 송파개발공사(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서울), 마포개발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지 자 체50% 이 상 출 자	8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구미경북원예수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 하남개발공사
지 방 공 단		38	시설관리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안성, 화성, 성남, 파주, 강북구, 종로구, 강서구, 강남구, 인천서구, 용인, 부평구, 속초시, 과천시, 계양구, 양천구, 성북구, 동작구, 동해, 청주, 연천군, 창원시, 인천남구, 거제시, 부산환경, 대구환경시설) 주차관리공단 (인천, 춘천, 구미) 기타 (창원경륜)
주 식 회 사	지 자 체 25 ~ 50% 미 만 출 자	23	(주)경남무역, (주)무학산청샘물, (주)제주교역 (주)안산도시개발, (주)대구종합무역센터 (주)전북종합무역,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주)전남무역, (주)부산전사컨벤션센터 (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주)부산관광개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제주컨벤션센터 (주)경북농산물물류센터, (주)구례지리산샘물 (주)과주혼합사료, (주)대전농수산물물류센터 (주)부천카툰네트워크, (주)부천무역개발 (주)목포농수산, (주)한국CES (주)효원, (주)인천도시관광
	지 자 체25% 미 만 출 자	11	(주)경북통상, 센텀시티개발(주), 울산일산유원지개발(주), 진로지리산샘물(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주)테즈락,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경춘, (주)도봉, 코다개발(주), (주)K3I

<별표2> 지표로 본 지방상수도 발전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총인구(만명)	4,688	4,171	4,754	4,798
급수인구(만명)	3,961	4,019	4,095	4,177
상수도보급율(%)	84.5	85.2	86.1	87.1
시설용량(만t/년)	836,690	899,141	945,277	946,228
급수량(만t/년)	583,597	562,439	582,411	567,829
조정량(만t/년)	417,190	397,594	414,182	423,664
생산원가(원/t)	434	489	535	569
판매단가(원/t)	316	349	394	442
요금현실화율(%)	72.8	71.4	73.6	77.7
총괄원가(억원)	18,116	19,444	22,171	24,107
급수수익(억원)	13,193	13,879	16,340	18,743
연간결손액(억원)	4,921	5,563	5,831	5,364
상수도채무(억원)	31,145	33,671	35,143	35,526
당기순이익(억원)	1,015	819	1,766	1,965
유수율(%)	71.7	70.7	73.9	74.8
1인1일물사용량(ℓ)	423	401	397	389
적용단체	90	92	92	94
결산액(억원)	31,145	28,407	29,481	31,675
인력(명)	16,665	15,341	14,592	14,060